

#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

- 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

김동전\*\*

## 〈차 례〉

1. 머리말
2. 동아시아 3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
3. Socotra Rock과 1938년 일본의 인공섬 계획
4.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과랑도 탐사
5. 1980년대 과랑도 탐사와 이어도과학기지 건설
6. 맺음말

## [국문초록]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하였다. 중국이 새로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중·일간 해양영유권 분쟁이 야기되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그리고 한국의 이어도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방공식별중첩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어도(leodo)'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을 토대로 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경제적, 해양과학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이 글은 한국해양연구원이 개최한 2007년 이어도연구 학술세미나(2007.3.9)에서 발표했던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의 역사민속학적 해석』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주최로 삼척에서 열린 제2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2011.8.4)에서 발표한 『이어도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어서 동아시아해역에서 한·중·일 3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어도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 5년(1868)의 일이다. 그 후 1900년 6월 5일 영국상선 Socotra호가 암초에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1901년에 영국해군이 암초를 확인하고 측량하여 'Socotra Rock'이라 해도에 표기하였다.

이 Socotra Rock에 인공구조물인 인공섬 건립을 가장 먼저 계획했던 나라는 동아시아 3국에서도 일본이었다. 1938년 일본은 나가사키-五島-제주도-소코트라 암초[波浪지]-화조산도-상해를 연결하는 920km의 해저케이블 수립을 계획했으나 태평양전쟁으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해방후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 선언'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파랑도 탐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7년에 파랑도가 국제법상 영유권 설정대상은 아니지만, 경제수역 선포시에는 인공도서 등을 설치 이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

1984년 5월 KBS 탐사대에 의해 스코트라암초인 수중섬이 확인되었고, 이곳을 제주인들이 상상 속에 존재해 오던 환상의 섬, '이어도'로 명명하여 2001년 1월에 공식적으로 확정하였다. 2003년에 이어도과학기지가 완공되어 주변해역의 해양 및 기상상태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해양예보,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해상교통안전, 재난재해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한·중·일의 갈등은 이미 예견되어 왔다. 아마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동아시아 3국의 이익이 밀접하게 교차되는 지역 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서서히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동아시아 3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적 갈등관계가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어도 및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동아시아 3국의 역사전쟁은 서로 자국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검토는 결국 동아시아해역의 갈등적 요소를 어떻게 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이어도과학기지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해역을 우리가 항구적으로 선점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이어도, 소코트라 암초, 파랑도, 파랑초, 이어도과학기지, 이승만, 박정희

## 1. 머리말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하였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군사·안보상 적국의 항공기를 식별하여 무력대응할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한 공중구역, 즉 배타적 공간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선제적 방어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으로써 ‘준영공’으로 통한다. 중국이 새로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중·일간 해양영유권 분쟁이 야기되는 센카쿠열도(尖閣列島/중국 명칭 댜오위다오 <釣魚島>), 한국의 이어도<sup>1)</sup>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양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수록 동중국해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아시아 지역의 갈등을 넘어 세계분쟁으로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적절한 해법을 다양하게 찾아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방공식별중첩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어도(leodo)’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을 토대로 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인공 구조물이 설치된 이어도는 북위 32° 07′ 22.63″ 동경 125° 10′ 56.81″ 지점으로 한국 최남단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49km), 중국 浙江省 舟山群島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인 똥다오(童島)의 북동쪽 133해리(247km), 일본 도리시마[鳥島] 서쪽 149해리(276km)에 위치한다.

주변해역은 수심 50m 정도로서 크기는 남북 1,800m, 동서 1,400m이며 암초정상이 해수면 아래 4.6m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어도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수중암초로 유엔해양법상 영토는 아니다. 따라서 해양법상 이어도는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EEZ나 대륙붕 등 해양 관할수역을 설정하거나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한 기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어

1)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離於島)’이다. 1987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에 ‘이어도’라 표기한 이후, 2001년 1월 22일 국립지리원의 중앙지명위원회가 소코트라 암초의 명칭을 ‘이어도’로 변경하는 문제를 심의, 확정하면서 ‘이어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1년 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의 명칭에 대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 파랑초(波浪礁), 파랑도(波浪島)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도 및 그 주변수역은 경제적, 해양과학적, 군사적으로 동아시아해역에서 한·중·일 3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어도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sup>2)</sup> 1901년 영국 해군 측량선 Waterwitch 호에 의해 Socotra Rock이라 명명된 후 한국에서는 波浪島[波浪礁],<sup>3)</sup> 이어도,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중국은 쑤엔자오[蘇岩礁], 일본은 波浪處[波浪ス, 하로우수]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sup>4)</sup>

- 2) 민속학적으로 제주인에게 환상의 섬 혹은 피안의 섬으로 알려진 '이어도', '이허도(離虛島)', '이어島'와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이어도'가 종종 동일시되어 사용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윤은 근대 제주인의 전설로 성립된 실존하지 않는 섬인 경우에는 '이어도'라 표기하고,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곳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바와 같이 '이어도(離於島)'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제주에서 구비전송되는 이상향의 섬을 '이어도' 표기하는 것이 전체된다면, '이어도'와 '이어도'는 분명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동윤, 「이어도 담론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14집 제2호(통권 제20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42~45쪽.
- 3) 한국에서는 소코트라 암초를 파랑초(波浪礁) 혹은 파랑도(波浪島)라 명명하여 왔으나, 이 소코트라 암초의 지명이 '이어도'로 변경된 후에 파랑초의 명칭은 사용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이어도 북동쪽 4.5km 지점에 있는 수심 24.6m의 수중 암초인 덩엔자오(중국 지명 丁岩礁, 덩엔)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해양수산부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덩엔자오를 파랑초로 명명하고 있다.
- 4) 이어도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윤, 「이어도 담론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14집 제2호(통권 제20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김동전,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의 역사민속학적 해석」, 『2007 이어도연구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07.  
 김은희, 『이어도를 찾아서』, 도서출판 이어도, 2002.  
 김태능, 「〈파랑도〉에 對한 異見」, 『제주도시논고』, 세기문화사, 1982.  
 김희열, 「이어도에 대한 서구의 인식」, 『이어도연구』 창간호, 이어도연구회, 2010.  
 송성대,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미」, 『이어도연구』 제4집, 이어도연구회, 2013.  
 송성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이어도저널』 5권, 이어도연구회, 2013.  
 송성대, 「지리적 팩트에 기반한 제주해민들의 이어도 픽션」, 『이어도연구』 창간호, 이어도연구회, 2010.  
 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도서출판 선인, 2011.  
 조성윤,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이어도연구』 제4집, 이어도연구회, 2013.  
 조성윤,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탐라문화』 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주강현, 「이어도로 본 섬-이상향 서사의 탄생」, 『유토피아의 탄생』, 돌베개, 2012.  
 한상복, 『波浪島 혹은 '소코트라巖'이라는 암초』, 『現代海洋』 16권 6호, 통권170호, 現代海洋社, 1984.  
 한상복, 「해양학에서 본 〈파랑도〉의 가치」, 『해양정책연구』 제6권 2호, 한국해양연구소, 1991.  
 현용준, 「想像의 섬 〈이어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검토는 결국 동아시아해역의 갈등적 요소를 어떻게 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해역을 우리가 항구적으로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인문학적 방안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것이다.

## 2. 동아시아 3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

防空識別區域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미국이 해안가로부터 공습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는 국제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 해당국이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한 일방적 조치이다. 領海는 일반적으로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이러한 영해 밖은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해 상공에서는 민간 또는 군용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해 그 구역에서의 공해 자유를 사실상 축소,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미국 공군이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처음 설정하였다. 2013년 12월 8일에는 군 항공 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새롭게 조정하였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북위 34도 17분 이남)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이 조정 구역에는 마라도와 홍도 남쪽의 영공과 이어도 수역 상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중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CADIZ :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중국대륙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다포위 섬(센카쿠 섬)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다. 또한 이어도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도 이 구역에 포함된다.<sup>5)</sup>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 본토에 진입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조기경보를 통해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일차적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중국 연안에서 해양 이익의 적극적인 보호와 이어도,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의 西沙群島와 南沙群島에 대한 관할권 및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의 문제는 공해상의 비행 자유 침해,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어도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를 포함함으로써 서로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1969년 선포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 :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일본 열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다. 본래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 태평양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때 이어도는 제외되었는데, 1969년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자신들의 구역 안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이에 한국이 재설정을 요구하자 일본은 이어도를 제외하면 독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다며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 발표 및 조정으로 한국은 이어도, 중국은 다펬다오(釣魚島), 일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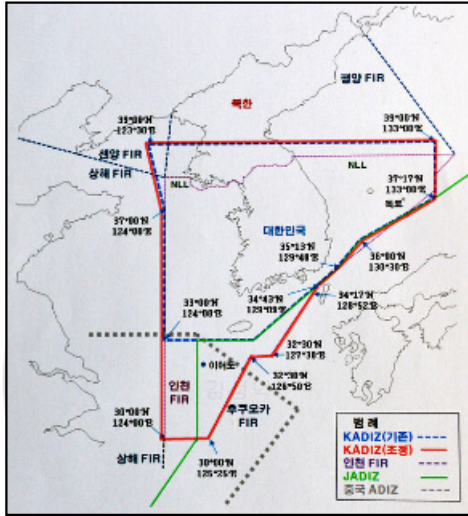
[그림 1]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현황  
(『세계일보』 2013.12.8)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송성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이어도저널』 5권, 이어도연구회, 2013.

센카쿠열도, 미국은 미공군 폭격훈련장(고비쇼, 세키비쇼)이 서로 갈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아시아 3국은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서로 겹치는 지역의 조정은 현재 서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림 2]는 2013년 12월 8일 한국의 국방부가 새롭게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마라도, 홍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해역에 대한 관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방공식별구역으로 불거진 동북아의 역학 관계 변화는 향후 이 지역의 갈등을 예견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중심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화,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등으로 동아시아의 해역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구체적 내용 (『뉴스코리아』, 2013.12.8)

### 3. Socotra Rock과 1938년 일본의 인공섬 계획

인공구조물인 이어도과학기지가 설치된 곳은 영국에서 소코트라 암초 [Socotra Rock]라 부르는 곳이다. 소코트라 암초가 발견되기까지 3번의 사

고가 보고되었다. 첫째, 1868년(고종 5) 미국 태평양 우편 증기선 회사 소속의 상선 코스타리카(Costarica)호가 동아시아해역을 항해하다가 해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북위 32도 10분, 동경 125도 3분에서 미확인 암초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영국 해군 수로국 소속 측량선 실비아(Sylvia)호가 이 암초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코스타리카호는 요코하마에서 중국 상해를 왕복하는 노선을 운행하던 배로 중국인과 일본인의 아메리카 이민을 가능하게 했던 선박이다.

둘째, 1896년 영국 해운회사 소속 증기선 상하이(Shanghi)호가 북위 32도 1분, 동경 120도 10분에서 9페덱의 소리를 포착했음을 영국 해군 수로국에 보고하였다. 1896년 12월에 영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선으로 해군함정 플로버(Plover)호를 파견하여 조사하였으나 수면 밑에 존재하는 암초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셋째, 일본에서 상하이로 항해하던 증기선 소코트라호가 1900년 6월 5일 밤(오후 9시 40분)에 북위 32도 9분, 동경 125도 7분에서 암초에 조금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sup>6)</sup> 나중에 배를 수리하려고 도크에 들어갔을 때, 손상된 밑바닥 부분에 진흙과 돌들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영국 해군성에서는 이 지역을 항해위험지역으로 선포하였다.<sup>7)</sup> 영국 해군성은 만일에 닥칠 해양사고 등을 염려하여 그 이듬해인 1901년에 영국해군 선적의 측량선 워터 위치(Water witch)호를 파견하였다. 1901년 7월 28~30일에 북위 32도, 동경 125도에 머무르면서 암초를 측량한 것으로 보인다.<sup>8)</sup> 당시 Water witch호는 보르네오 북서해안을 측량하고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소코트라호가 보고한 해역에서 수심 18피트(약 5.5m)밖에 안되는 암초를 확인하여 측량하고는 처음 발견해서 보고한 선적의 이름을 따서 Socotra Rock이라

6) 소코트라(Socotra)호는 1896년 건조되어 1915년까지 중국, 인도, 호주를 오가면서 화물 및 우편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일반 정기 화물선이다(조성윤,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이어도연구』 제4집, 이어도연구회, 2013, 15쪽).

7) Notice No. 560 of 1900, the Admiralty Hydrographic Office, U.K.

8) 조성윤, 앞의 논문, 23~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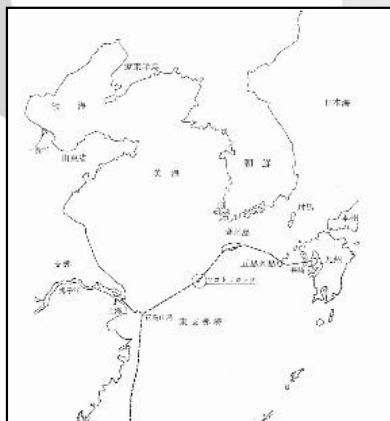


해도에 표기하였다.

1901년 8월 16일 일본 해군 수로국이 영국 측량함 워터위치호의 險礁 측량 결과를 水路告示 제1250호로 발표하였다. 영국 워터위치호의 측량 결과, 북위 32도 7분 15초, 동경 125도 11분의 바다 밑에서 험하게 솟아오른 화산 모양의 尖岩 정상에 石花點礁灘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그 북동에서 남서에 이르는 길이 약 1/4해리, 폭 약 60碼(영국 척도 단위), 가장 얇은 쪽은 18척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灘위로 격렬한 波浪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이 石花點礁灘은 1868년(일본 연호로 명치 원년) 보고한 「코스타리카」호의 波浪礁, 1900년(명치 33) 6월의 「소코트라」호와 1900년 9월 「추엔」호의 淺灘, 1900년 10월 「보무베」호의 變色水라 보고한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Socotra Rock에 인공구조물인 인공섬 건립을 가장 먼저 계획했던 국가는 동아시아 3국에서도 일본이었다. 일본은 1937년 대륙진출을 위해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그 이듬해인 1938년에는 나가사키~五島~제주도~소코트라 암초[波浪志]~화조산도~상해를 연결하는 920km의 해저케이블 수립을 계획하였다.<sup>11)</sup>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나가사키에서 시작한 전화 케이블은 고토열도에서 제주도 남쪽 육상으로 이어지고, 소코트라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중계 기지를 건설하여 중국 花鳥山島를 거쳐 상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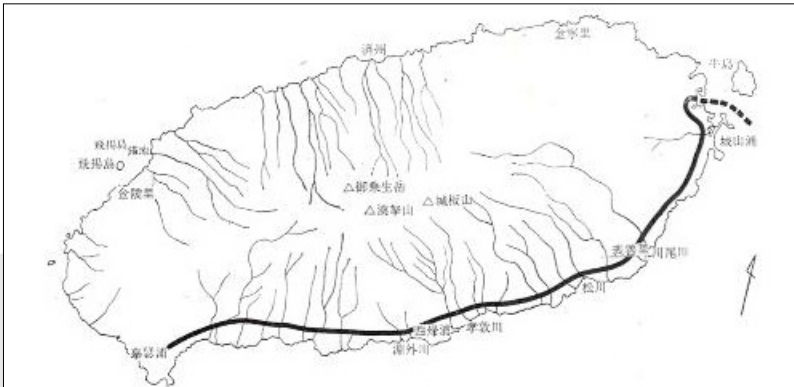
[그림 3] 나가사키~상해 케이블 수립 계획도

9) 水路告示 제1250호(1901 明治 34年) 第3252項, 「支那國 楊子江口外 大楊子沙東方의 險礁 發見」.

10) 위와 같음.

11) 日本電信電話公社海底線施設事務所編, 『日本における海底線』 第1分冊~第10分冊, 1968, 別冊. 일본의 소코트라 암초 인공섬 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대학교 조성윤 교수가 (사)이어도연구회의 2013년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본 자료의 제공에 감사드린다.

이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제주도 육상의 케이블 매설은 [그림 4]와 마찬가지로 고도열도에서 海底를 따라 제주도 동쪽 성산포로 들어와서 제주도 남쪽인 표선, 남원, 서귀포, 중문, 안덕, 모슬포를 거쳐 다시 해저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4] 일본의 케이블 매설 제주도 예정 계획

제주도를 지나 소코트라 암초의 인공섬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된 해저케이블은 계획에 머무르고 말았다. 즉, 일본은 1938년부터 해저전선 중계기지 설치를 목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직경 15m, 수면 위에 35m의 케이슨 설치를 소코트라 암초에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태평양전쟁 등으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소코트라 암초가 파랑도 및 파랑초로 불리게 된 것은 일본 해도에 波浪ス(하로우수)라 표기하면서이다. 이는 이 주변 해역이 중국연안수와 대만난류가 서로 교차하면서 많은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코트라 암초는 국내에서 도 波浪島 또는 波浪礁로 표기하였다.

## 4.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파랑도 탐사

### 1) 이승만 정부의 파랑도 탐사

해방 후인 1950년대 한일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구권과 평화선이었다. 평화선은 현실적으로 해양어민들이 수산경제라는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고, 나아가 이는 해양주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일간에 동해를 둘러싼 쟁점은 맥아더 라인, 한국의 평화선, 일본의 ABC선이었다. 맥아더 라인은 맥아더가 1945년 9월 선포한 것으로 1946년 6월과 1949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확대되었다.

그런데 맥아더 라인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와 더불어 폐지되었다. 한국은 1952년 1월 18일 주권국가의 공해어업의 국제조약체결의 실효에 기초하여 수산자원보호관리 수역에 관한 해양주권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곧 이승만의 평화선 선포였다. 이는 한국이 최장 200해리에 해당하는 수역과 해저 대륙붕에 관한 주권을 보호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배타적 어로수역을 선언한 것이다.

평화선 선포에 앞서 한국정부는 파랑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다. 1951년 7월 20일 워싱턴에서 보내온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에의 참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 박사는 19일 트루만 대통령의 대일강화 특사 존 포스터 덜레스를 방문하여 대일강화조약에의 참가를 통고하였다. 그 목적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파랑도와 독도를 한국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일 간에 어업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맥아더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미 한국대사는 한국이 조선 해안에 있는 대마도를 요구하는 대신에 파랑도와 독도를 요구하였다.<sup>12)</sup> 특히, 독도와 더불어 한국에 귀속되어야 할 곳으로 파랑도를 매우 주목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 때의 한일 양국의 영토획정에 있어서 독도와 더불어 마땅히 한국에 귀속되지 않으면 안될 섬의 하나로써 파랑도의 영토 처분이 극히 주목되고 있다. 파랑도는 제주도의 서쪽에 있는 바위로 된 작은 섬으로 동경 120도, 북위 32도 35초에 위치하고 있다.

해류의 관계로 황해의 어족이 이 섬과 또는 섬 부근에 모여들기 때문에 막대한 고기가 잡혀 왔던 것이며, 또한 이렇게 파랑도가 중요한 어장의 하나인 만큼 만일 이 섬을 빼앗긴다면 수산업상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둔군 당국의 허가를 얻었다고 해서 이 섬까지 진출하여 마음대로 어로 하였으며, 그 어획물을 독차지하여 왔고 지금도 일본의 유력한 어장의 하나가 되어 있다 한다.

그런데 외무부에서 한국의 수로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한 결과, 파랑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한편 위치상으로 보아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국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영국·중국·일본의 문헌과 해도에도 이 섬이 한국의 것이라는 확증이 뚜렷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외무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물적 증거를 다방면으로 입수하여 (1951년) 9월 1일 주미 양(유찬) 대사에게 보내어 이 섬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증만시키려는 일본측의 주장을 좌절시키도록 혼전하였다 한다.<sup>13)</sup>

한국은 북위 32도 35초, 동경 120도에 위치하고 있는 수중 암초인 파랑도를 ‘바위로 된 작은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요한 어장의 하나인 파랑도에 일본이 진출하여 어획물을 독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수중 암초로 파랑도는 엄연히 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에 첨예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파랑도가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역이라는 물적 증거를 다방면으로 입수하

12) 『서울신문』 1951년 7월 21일.

13) 『민주신보』 1951년 9월 3일.

는 데 주력하였다. 파랑도는 영토문제, 수산업,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한·일 양국이 인식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대일강화조약이 끝난 이후에 있어도 한일 양국 간에 개재하여 있는 제반 문제, 영토문제·재산문제·어획구 확정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의당히 양국 간에 어떠한 협상이 있어야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대마도를 포함한 독도·파랑도 등 영토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동시 한국 수산업 및 국방적 견지에서 중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맥아더라인의 계속적인 존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재확인 파악키 위하여 그간 법무, 상공, 국방, 외무 등 4부처 간에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듭한 결과 성안을 얻게 되어 국무회의에 부쳐 최후적인 심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금반 등 문제가 새삼스레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써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목하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일강화조약의 순조로운 진전과 아울러 불원하여 취하여야진 일본측의 동 라인 철폐를 위한 전면공작에 대비키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동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정식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에서는 수일 내에 대외적으로 중대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sup>14)</sup>

결국 이승만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의 대일강화조약을 계기로 제주도 서남 해상에 위치한 파랑도에 대한 일본의 진출을 저지하고, 우리의 영토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파랑도 탐사를 위해 조사단 일행 30명을 태운 해군함정이 1951년 9월 18일 부산항을 출항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였다. 조사단은 단장 洪鍾仁을 중심으로 해군과 산악인으로 구성하여 지리·역사·언어·해양·기상·수산의 6개 반으로 편성되었다. 조사단은 10여 일 일정으로 파랑도를 조사하여 과학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였다.<sup>15)</sup> 그러나

14) 『서울신문』 1951년 9월 10일.

15) 『조선일보』 1951년 9월 22일.

해도상에 표시된 파랑도의 실체를 찾는 데에 실패하였다.<sup>16)</sup> 당시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 선언’을 앞두고 영토문제, 수산업, 군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파랑도 탐사를 시도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평화선은 우리나라 주변 水域에 한국의 주권을 선언한 海洋主權線으로 인접국가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선이란 데서 불리어졌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정해진 것으로, 소위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한다. 한·일간 어업상 격차의 심화, 연합군의 일본 점령 관리 중 일본인의 어업활동을 일정 수역으로 한정했던 ‘맥아더 라인’의 철폐, 세계 각국의 主權的專管化 추세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철폐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민들에게 죽음과 삶이 넘나드는 전설상의 섬으로 알려진 파랑도의 실체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비록 전설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파랑도의 소재가 확인된다면 평화선 외에 영해권을 행사해서 일본 어선의 제주해양침범을 막고, 국토를 연장시킴으로써 해양영유권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국민의 희망과 달리 파랑도 탐색에 실패함으로써 파랑도 전설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해군 함정의 파랑도 탐색에 실패하자, 제주의 향토사가가 김태능은 북중국과 평안도 사이에 위치한 海浪島가 파랑도라고 새롭게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 근거로 『성종실록』에 제주인 20여 명이 해랑도에 진출하여 평안도 사람들과 더불어 화전을 경작하고 어로를 생업으로 삼고 살았다는 내용과 성종 때에 제주도민들이 평안도 지역으로 일부 옮겨진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해랑도는 지금의 중국 海洋島로 요동반도 동남방 外長山島의 최동단의 絶島이며, 평북 宜川郡의 大和島에서 서남방 백리 이내의 해상에 위치한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원과 명나라에 공물을 바칠 때에 명월포, 서림

16) 『동아일보』 1951년 9월 23일.

포구 등에서 출발하여 해로상 위험이나 해적의 피해가 없는 항해노선을 택하여 한반도 서해안을 沿海하여 북상하다가 長湍방면에서 산동반도를 향하여 직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안전한 곳을 택하여 宜川 앞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이 해랑도를 거쳐 요동반도의 남방 長山列島 부근을 통과하여 북중국연안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파랑도의 실체를 찾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파랑도는 어디까지나 소코트라 암초로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 2) 박정희 정부의 파랑초 영유권 문제 검토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이어도의 명칭은 파랑도보다는 波浪礁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너바 협약과 유엔해양법 등에 간출지에 대한 국제법규가 정의되었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박정희 정부 역시 동아시아해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소코트라 암초 해역이 일찍부터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파랑도의 실체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1973년 6월 제주도 서귀읍 서흥리 출신 한광석씨가 당시 남제주군청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교통부 수로과에서 파랑도 탐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실패하였다.<sup>17)</sup>

1977년 11월에 박정희 정부는 파랑도로 알려진 파랑초에 대한 영유권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1977년 외무부에서 검토해서 올린 「波浪礁 및 日向礁의 領有權問題 檢討結果」(1977년 11월) 문서를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서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재일은 1977년 11월 21일로 되어 있다. 박정희 정부는 파랑초와 함께 일향초도 매

17) 외무부, 「波浪礁 및 日向礁의 領有權問題 檢討結果」(1977년 11월),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우 주목하고 있었다. 이 두 지역은 국제법상 영유권 설정대상은 될수 없으나 향후 경제수역 선포시에 인공도서 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파랑초는 파랑도임을 이미 언급하였고, 일향초는 지금의 가거초이다.<sup>18)</sup>

먼저 파랑초 및 일향초의 지리적 상황은 파랑초가 마라도 서남방 82해리 지점으로 북위 32도 7초 6분, 동경 125도 10초 7분이다. 일향초는 소흑산도 서남방 27해리 지점으로 북위 33도 56분 3초, 동경 124도 35분 5초에 위치한다. [그림 5]에 의하면 이 두 지역은 모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랑초 및 일향초에 대한 정부의 탐사실적으로는 1951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로 해군조사단이 파랑초를 현지 답사했으나 간출암 발견에는 실패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단을 태운 해군 함정이 부산항을 출항한 것은 1951년 9월 18일이다.<sup>19)</sup> 따라서 파랑초에 대한 탐사는 1951년 8월



[그림 5] 파랑초(이어도)와 일향초(가거초)의 위치

이 아니라, 1951년 9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973년 6월 29일에 교통부 수로국 관계관들이 파랑초 및 가거초(일향초)를 현지 탐사하였으나 간출암 발견에 역시 실패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58년 영해

18) 可居礁는 전라남도 신안군 서남쪽에 위치한 수중 암초이다. 1927년 3월 29일 일본 군함 일향(日向)호가 이 암초에 걸려 침몰한 뒤 일본군은 같은 해 8월 14일 수척의 트롤어선을 동원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암초명을 군함의 이름을 따 日向礁라고 불렀다. 대한민국 국립해양조사원은 1991년 9월 흑산도 서부 한미 합동수로 측량 시 최저수심 7.8m의 이 암초를 확인했지만 이름을 바꾸지는 못했었다. 2006년 12월 19일 해양조사원은 해양지명위원회를 열어 일향초를 가거초로 변경하였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이어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다.

19) 『동아일보』 1951년 9월 23일.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의 통합초안을 바탕으로 ‘간출지’ 관계 국제법규를 파악하고 있었다. 즉, 만조시에는 수면 밑에 있으나 저조시에는 수면 위로 표출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상의 육지 지역을 간출지로 파악하고 있었다.<sup>20)</sup> 간출지가 육지 또는 도서의 영해 범위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영해 측정시에 통상기선의 기점, 등대 등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육지 또는 도서의 영해범위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sup>21)</sup> 외무부의 문서는 파랑초와 일향초에 대한 영유권 설정문제, 인공시설 설치이용 문제, 재탐사문제 등으로 정리하고, 파랑초 및 일향초 인근수역도를 제시하고 있다.

① 영유권 설정문제 : 국제법에 의하면, 만조시에는 수면 밑에 있다가 간조시에는 수면위로 표출되는 이른바 干出地는 “영해범위내”에 있을 경우에만 영해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영해 밖에 있을 때는 자체의 영해도 가질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파랑초는 최근 도서인 마라도로부터 82해리, 일향초는 최근 도서인 소흑산도로부터 27해리가 떨어져 있어, 설사 간조시에 수면에 표출된다고 하더라도 영해측정의 기점으로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의 영해도 가질 수 없는바, 아무런 영유권 설정대상이 되지 않음.

② 인공시설 설치이용 문제 : 국제법은 경제수역 내에 시설물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대륙붕대에 위치하고 있는 파랑초와 일향초는 정부가 경제수역 선포시 중공과 중간선을 채택하더라도 우리 측 수역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공도서 등을 설치하여 경제수역내 자원개발을 위한 기지로 이용할 수도 있음.

20) 외무부, 『波浪礁 및 日向礁의 領有權問題 檢討結果』(1977년 11월),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21) 위와 같음.

③ 재탐사 문제 : 정부가 1951. 8과 1973.6.29. 2차에 걸친 현지답사에서 干出 岩 발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랑초를 목격했다는 사실이 있는 바, 이를 확인하는 한편, 경제수역 선포시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탐사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sup>22)</sup>

국가기록원 소장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파랑초와 일항초는 영유권 설정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공도서 등을 설치하여 경제수역내 자원개발을 위한 기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탐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파랑초가 국제법상 영유권 설정대상은 될 수 없으나, 인공도서 등을 설치하여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위한 파랑초 재탐사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1980년대 파랑도 탐사와 이어도과학기지 건설

### 1) 1980년대 파랑도 탐사와 ‘이어도’ 명칭

1980년대의 파랑도 탐사는 KBS가 주도하였다. 즉, 1차로 1984년 3월 18일(KBS와 제주대학교), 2차로 1984년 5월 8~15일까지 파랑도 학술탐사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소년단이 주축이 되어 1984년 4월 8일 파랑도 학술탐사를 실시하였고, 제주MBC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1989년 여름 2차례 파랑도 탐사를 실시하였다. 1997년 8월에는 이어도 학술조사(KBS 특별기획)가 다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KBS는 수산청수산진흥원, 제주도,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한국과학기술원해양연구소, 제주스쿠버, 다이빙클럽 등 학계 및 수중전문가들의 도움을

22) 위와 같음.

받아 탐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이어도로 추정되는 수중섬 파랑도는 거대한 '산호암초'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파랑도의 암석은 화산 폭발할 때 분출하는 화산재가 응고한 응회암이며, 생물분포는 상층부가 산호로 덮여있고, 15m이하에는 모자반류, 산호, 우럭, 담치, 소라, 흑돔 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해역은 중국 황하의 담수가 유입돼 염도가 낮았으며 냉온수대가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어족자원과 어로연구에 중요한 곳임이 확인되었다.<sup>23)</sup>

KBS 탐사대에 의해 소코트라 암초인 수중섬이 확인되면서 수중섬은 제주인들에게 전설상으로 전해져 오는 이상향의 섬, '이어도'일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제주도 전설에 나타나는 환상의 섬, 이어도가 실존하는 섬이라면, 이 소코트라 암초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막연한 추측에서 이 암초에 '이어도' 혹은 '이어도'라는 이름을 종종 붙여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보았다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다녀왔다는 사람도 없으며,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섬, '이어도'는 언론에 의해 서서히 우리 앞에 가상의 실체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sup>24)</sup>

이는 행정기관으로까지 확대되어 1987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이곳을 '이어도'라 부르고, 이어도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 안전을 위해 燈浮標를 설치하였다. 1987년 8월 1일 소코트라 암초(파랑도)에 해안접안시설인 등부표가 설치돼 이곳을 왕래하는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됐다. 파랑도는 수중 암초로 정봉을 중심으로 약 250km 정도로 유선형을 이루고 있다. 파랑도 남동쪽이 급경사인 반면에 북서쪽은 완경사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곳은 중국 양자강과 황해 쿠로시오 난류가 합쳐지는 삼각지점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주요 통과해역이다. 근처해역에서 조업하는 수만

23) 『제주신문』, 1984.5.8, 1984.5.12.

24) 제주인들이 인식하는 전설상의 섬 '이어도'와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를 구분하였다. 김동윤, 『이어도 담론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14집 제2호(통권 제20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참조.

척의 어선과 연평균 16만 척의 각국 국적선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어 등부표 설치는 각종 선박의 안정항해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설치된 등부표는 태양 전지와 축전지를 이용, 남에 충전했다가 야간에 방전하는 데 광달거리가 8마일(14.8km)에 이른다.<sup>25)</sup> 그러나 등부표는 태풍으로 인해 매년 유실되는 수난을 겪어오다 이어도과학기지 건설로 철수되었다.

2000년 12월에는 ‘이어도’를 공식명칭으로 결정하여 海圖에 기재하였다. 즉, 제주도는 2000년 12월 30일 파랑도를 ‘이어도(離於島)’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00년 영국상선 소코트라호가 부근 해역을 항해하다가 최초로 발견하여 명명된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가 파랑도, 파랑초 등으로 불리다가 지명이 이어도로 공식화되었다. 이어도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는 그후 제주인에게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요와 전설상의 이상향, 환상의 섬인 이어도와 일치시켜 나갔다. 이어도는 제주인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왔고, 특히 해녀들이 부르는 민요에 많이 등장한다. 또한 거의 모든 노래의 후렴에 불리울 만큼 이어도는 제주인의 정서적인 유토피아이다. 그런데 모호하게 소코트라 암초가 ‘이어도’로 지명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sup>26)</sup> 그리고 2001년 1월 22일에는 국립지리원이 중앙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코트라 암초의 명칭을 ‘이어도’로 변경하는 문제를 심의, 확정하였다. 제주인의 이상향으로 구비전승되는 ‘이어도’가 이어도과학기지가 설치된 실존하는 ‘이어도’로 바뀌어 나간 것이다.

## 2) 이어도과학기지 건설

1987년 이어도에 등부표를 설치하여 이용해 오다가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1994년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건설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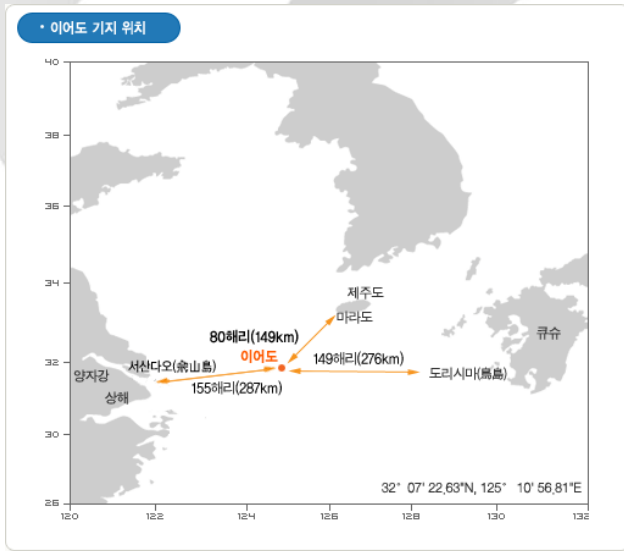
25) 『제주신문』, 1987.8.12.

26)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포털 <http://www.land.go.kr/portal/main/keywordSearch.do>

1995년 해저지질조사 등을 통해 2003년 6월 11일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한국해양연구원과 (주)현대중공업에 의해 준공되었다.

이어도과학기지의 목적은 동중국해 중앙에 위치한 수중암초인 이어도에 고정식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주변해역의 해양 및 기상상태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해양예보,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해상교통안전, 해난재해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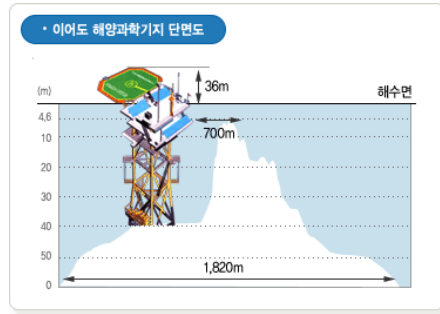
이어도과학기지의 정확한 위치는 북위 32도 07분 8초, 동경 125도 10분 6초이다. 한국 최남단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49km),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로부터 북동쪽으로 155해리(287km), 일본 도리시마[鳥島] 서쪽 149해리(276km)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림 6]과 같다.<sup>27)</sup>



[그림 6] 이어도과학기지가 위치한 이어도

27) <http://ieodo.khoa.go.kr/>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홈페이지 참조(2013.12).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해역은 수심 50m정도로서 크기는 남북 1,800m, 동서 1,400m이며, 암초정상이 해수면 아래 4.6m에 위치한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의 규모는 헬기착륙장 및 관측장비를 구비한 약 400평 규모의 2층 Jacket 구조물, 수면으로부터 높이 36m



[그림 7]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단면도

의 해양관측기지를 건설하여 무인자동화 운영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어도과학기지는 기상예보·해상예보의 적중률을 높여서 자연재해를 최소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 동북아지역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도, 등대·해난구조 및 안전항로 확보로 인한 해안안전 시설물로 활용, 중국·일본과의 EEZ/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시 해양영역의 확대와 배타적 권리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sup>28)</sup>

## 6. 맺음말

한·중 어업협정은 협상 7년만인 2000년 8월 3일 정식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서 한국측은 마라도에서 149km밖에 안 떨어진 이어도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해 버리는 황당한 협상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한·중 양국 간에 이어도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1994년 발표한 유엔해양법협약은 이어도처럼 물 위로 나오지 못한 수중암

28) 위와 같음.

초는 법률적으로 섬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도는 현재 경계확정이 안되고 있으나, 그 위치로 볼 때에 한·중·일 3국의 EEZ 및 대륙붕이 중첩되는 수역에 있다. 그 중간수역을 기준으로 EEZ를 정할 경우에 이어도는 한국측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어도의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0년 이후 이어도과학기지와 관련하여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9월 14일에 중국은 ①이어도는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의 요소가 될 수 없다. ②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이 각기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지역에 존재한다. ③이어도에서 종합해양과학기지와 같은 구조물 설치 등 한국이 취한 조치는 일방적인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더구나 중국은 1999년, 2001년, 2002년 이어도 부근에서 발견된 또 다른 암초를 조사한 뒤 덩옌(丁岩)이라 명명하였다. 이 덩옌은 이어도에서 동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로 길이 390m, 너비 220m, 면적 0.086km<sup>2</sup>, 암초의 정상은 수심 27m 아래에 존재한다. 이어도보다도 우리 해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최초의 발견자를 떠나 한국측 관할권 내에 해당한다. 중국이 덩옌이라 부르는 암초를 한국 해양수산부는 2007년 1월 7일에 파랑초라 명명하였다. 스코트라 암초, 파랑도, 파랑초라 부르던 곳이 이어도로 정착되면서, 이어도의 옛 명칭으로 불리워지던 파랑초가 다시 이어도 인근 또 다른 암초의 명칭에 붙여졌다. 심지어 중국이 최근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한·중·일의 갈등은 이미 예견되어 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 3국의 이익이 밀접하게 교차되는 지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서서히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동아시아 3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적 갈등관계가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분명하다. 역사전쟁은 서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시작인 셈이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을 통해 소수민족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편입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이어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어도공정을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동남공정을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포석이라 판단된다. 일본과의 분쟁이 되고 있는 조어도에 대한 유리한 입장의 확보, 나아가 태평양진출이라는 장기적 포석을 가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왕젠싱의 주도하에 이어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기지를 철거시키고 이어도를 중국령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어도(중국명 쑤엔차오) 보위 협회’ 구성, 나아가 중국과 일본 간에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조오도(다오위다오)’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 대만, 홍콩의 민간 반일본단체인 ‘바오다오행동위원회’와 연계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0년의 한·중 어업협정과 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학술적 대응과 정책, 시민단체의 이어도 지킴이 운동 등이 확산되어 이어도의 진실을 알려 나가야 할 것이다. (사)이어도연구회를 중심으로 이어도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아시아해역을 둘러싼 한·중·일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의 평화문화공동체 구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 ■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波浪礁 및 日向礁의 領有權問題 檢討結果』(1977년 11월, 외무부).
- 김병렬, 『이어도를 아십니까?』, 홍일문화, 1997.
- 김은희, 『이어도를 찾아서』, 도서출판 이어도, 2002.
- 김영돈, 『濟州道民謠研究 上』, 일조각, 1965.
- 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도서출판 선인, 2011.
- 高橋 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 『朝鮮』 212號, 昭和 8年.
- 김동윤, 『이어도 담론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14집 제2호(통권 제20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 김동전, 『이어도와 이어도 과학기지의 역사민속학적 해석』, 『2007 이어도연구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7.3.
- 김병렬, 『이어도의 법적 지위』, 『국방대학 교수논총』 제11집, 1997.
- 김병렬, 『이어도와 독도』, 『군사세계』 88, 2000.9.
- 김부찬, 『한·중어업협정과 '이어도' 주변 수역의 법적 문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0호, 제주대, 1999.
- 김영돈, 『이어도』,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1999.
- 김영화, 『문학과 이어도』,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김태능, 『(과랑도)에 對한 異見』, 『제주도시논고』, 세기문화사, 1982.
- 김희열, 『이어도에 대한 서구의 인식』, 『이어도연구』 창간호, 이어도연구회, 2010.
- 송성대, 『地理學的으로 본 奇論臆說의 中國 이어도工程』, 『2007 이어도 연구 학술세미나발표논문집』, 2007.3.
- \_\_\_\_\_, 『지리적 팩트에 기반한 제주해민들의 이어도 픽션』, 『이어도연구』 창간호, 이어도연구회, 2010.
- \_\_\_\_\_,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미』, 『이어도연구』 제4집, 이어도연구회, 2013.
- \_\_\_\_\_,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이어도저널』 5권, 이어도연구회, 2013.
- 신희천, 『〈이어도〉의 원형에 대한 연구』, 『북악논총』 제3집, 국민대 대학원, 1987.9.
- 심재설, 『전설의 섬 이어도 과학기지로 재탄생』, 『과학동아』, 1997.12.
- 이대우, 『이어도에 등부표 설치를 마치고 : 설계를 중심으로』, 『항만』 27, 1987.
- 이세진, 『이승만의 평화선과 해양주권』, 『제3회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2.8.
- 정공흔, 『Socotra 礁의 由來에 대하여』,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조성윤, 『영국 배의 소코트라 임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이어도연구』 제4집, 이어도연구회, 2013.
- 조성윤,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탐라문화』 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좌혜경, 『제주민의 정신적 고향, 이어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2007년 강창일국회의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1.
- 주강현, 『과학과 신화: 섬과 유토피아의 세계』, 『2007 이어도연구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7.3.

한상복, 『『波浪島』 혹은 『소코트라巖』이라는 암초』, 『現代海洋』 16권 6호, 통권170호, 現代海洋社, 1984.

\_\_\_\_\_, 『해양학에서 본 <파랑도>의 가치』, 『해양정책연구』 제6권 2호, 한국해양연구소, 1991.

현용준, 『想像의 섬 <이어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K C I

# Historical Recognition for Ieodo and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 Seeking Solutions of the Conflict about the Seas of East Asia

Kim, Dong-Jun

China declared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over the sky of the East Sea of China. The new ADIZ covered Senkaku Islands(尖閣列島)/Diaoyudao(釣魚島) where there is sovereignty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and it also covered Ieodo where Korean ocean research station is.

While Ieodo is covered by all three ADIZ of Korea, China and Japan,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a solution to the conflict over the east asian sea by analyzing Ieodo based on Historical folklore perspective. Ieodo and surrounding sea is perceived as an economically, scientifically and militarily important region.

In historical view, Ieodo was first reported in 1868(고종 5년). Then, British navy marked Ieodo as 'Socotra Rock' on marine chart in 1901 after british merchant ship named Socotra collided with the rock in 1900.

Japan was the first nation to plan to build an artificial structure on Socotra Rock. In 1938, Japan had planned establishing a 920km long submarine cable connecting Nagasaki - Goto - Jeju island - Socotra Rock - Huaniaoshan Island - Shanghai but was never carried on due to the Pacific War.

After regaining independence in 1945, Rhee Syng-man(이승만) government tried to explore Ieodo but failed. Park Jung-hee(박정희) government also failed

in 1973 but by 1977, they saw Ieodo as not a subject for sovereignty but a subject for economic zone.

In May, 1984, KBS expedition reported a submerged rock which found out to be Socotra Rock and by January 2001, it was named Ieodo after utopian island of people of Jeju islands' imagination. In 2003, Ieodo ocean research center was built and the station collect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a real-time basis which is required for ocean and weather forecast, fishery forecast, response to the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safety of marine transportation, coastal disaster prevention and climate change prediction.

**Key Words** : Ieodo, Socotra Rock, ADIZ,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Rhee Syng-man, Park Jung-hee